

kiri Weekly

2012.9.10 제198호

이슈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포커스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금융보험 해설

생명보험의 이해 10: 단체보험의 세계

국내금융 뉴스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발표

금감원, 표준위험률 개선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8월 ISM 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유럽 _ 대출금리 양극화로 유로존 분열 위험 확대

일본 _ 7월 실질 GDP, 3개월 만에 감소

중국 _ 저소득층을 위한 중대질병보험제도 도입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 및 노후준비 실태 비교와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보험가입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생명보험 가입률(87.3%)이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주로 질병보험(83.7%), 사망보험(28.6%), 연금·저축성보험(25.3%)에 가입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26.9%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를 위해 공·사연금의 가입이 가장 적합한(66%)것으로 응답한 반면, 자녀의 지원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0.8%)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노후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가 평가함. 이들의 노후대비 월 평균 저축액은 32.1만 원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노후비용의 45.2%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공·사연금 가입률은 90.2%, 공·사연금 납입보험료 수준은 월 평균 27.5만 원으로 높음.
-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61~63세)까지 국민연금 미 수급 상태에 놓이게 됨. 이에 다양한 은퇴교육 확대를 통해 은퇴 준비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보험가입이 대부분 보장자산에 집중하고 있어 은퇴자산으로 분산하여 장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식 전환과 함께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제적격 납입기간 단축 및 세제 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아울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연금화하여 퇴직금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영업 등 창·폐업에 따른 자산 소진에 대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용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들 상당수가 향후 퇴직연금 가입 시 10년의 가입기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연금 수급요건의 한시적 조정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최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건강 및 노후복지 대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퇴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이들의 은퇴는 경제활동인구의 31%가 생산·근로현장을 떠나 재취업 또는 은퇴자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사회보장 수요 증가와 은퇴 및 소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 성장기의 산업화에 기여했고 교육의식과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이 높은 마지막 세대이자, 노후생활을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의 샌드위치 세대임.¹⁾

- 특히, 우려되는 점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이들이 경제활동기간보다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첫 세대로서 건강관리와 노후생활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장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자신의 노후생활을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공적 보장과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베이비붐 세대의 보험가입과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실태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고는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²⁾ 결과를 기초로 연령그룹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그 이전에 출생한 세대(이하 이전 세대), 그 이후에 출생한 세대(이하 이후 세대)로 구분하여 비교함.
-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2년 3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200명(유효표본)을 개별면접 방식으로 가구와 개인 응답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표본 수는 <표 1>과 같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자식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며(응답자의 93.2%), 노후 수발을 자식에 의존하고 싶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응답자가 96.2%)을 차지함.

2) 전체 보험소비자의 세부적인 가입실태 분석은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2012)를 참조함.

〈표 1〉 표본의 구분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세대주 연령별	베이비붐 이후 세대	(513)	42.8
	베이비붐 세대	(343)	28.6
	베이비붐 이전 세대	(344)	28.7
응답자 연령별	베이비붐 이후 세대	(689)	57.4
	베이비붐 세대	(245)	20.4
	베이비붐 이전 세대	(266)	22.2

2. 보험가입 실태



■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7.4%로 이후 세대(81.3%)보다 6.5%p 높고*3), 이후 세대(66.5%)보다 21.3%p 높은 것으로 나타남**4).

-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건강 및 신체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는 인식이 높고 경제 활동기간이 가장 긴 현역세대로서 보험가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반면, 이후 세대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짧고 이전 세대는 보험가입 기간의 종료, 고령자 가입을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성 부족, 상대적으로 긴 계약해지 노출기간 등이 낮은 가입률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표 2〉 생명보험 가입률 비교

(단위: %)

구분	이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	전체
가입률	81.3	87.8	66.5	79.3

3) *는 신뢰구간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하 동일).

4) **는 신뢰구간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하 동일).

■ 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83.7%), 사망보장보험(28.6%), 연금·저축성보험(25.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질병보장보험**과 연금·저축성보험* 가입률은 이후 세대 가입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각각 14.6%p, 7.4%p).
- 전자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경제활동기의 현역 세대로서 건강 및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후자의 경우 연금 등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 비교(복수응답 포함)

(단위: %)

구분	질병 보장보험	사망 보장보험	연금·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이후 세대	69.1	25.4	17.9	7.1	12.3
베이비붐 세대	83.7	28.6	25.3	6.1	15.5
이전 세대	60.9	15.0	10.9	0.0	8.6
전체	70.3	23.8	17.8	5.3	12.2

주: 비 가입률은 제외.

■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1년 이내 생명보험 가입 의향은 26.9%로 이전 세대(15.8%)보다 높은 반면, 이후 세대(46.6%)보다 낮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이 이후 세대보다 현저하게 낮아 1년 이내의 생명보험 구매력은 크지 않지만 향후 1년 이내로 한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생존기간 동안의 가입 니즈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베이비붐 세대와 이후 세대의 경우 연금·저축성보험의 가입 의향이 각각 14.3%와 24.1%로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반면, 이전 세대의 경우 질병보장보험의 가입 의향이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이러한 보험가입 니즈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설계와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통해 신규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4〉 향후 1년 이내 생명보험 가입 의향 비교(복수응답 포함)

(단위: %)

구분	질병 보장보험	사망 보장보험	연금·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전체
이후 세대	18.3	11.9	24.1	7.1	46.6
베이비붐 세대	9.8	4.1	14.3	2.0	26.9
이전 세대	12.0	1.1	2.6	0.4	15.8
전체	15.2	7.9	17.3	4.6	35.7

주: 기타 보험종목 제외.

3. 노후생활준비 실태



■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에 적합한 생활자금으로 국민연금(38.4%), 개인연금(19.0%), 은행예금(13.1%), 퇴직연금(10.6%), 부동산 수입(10.2%)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거의(0.8%) 기대하지 않음.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개인연금의 응답률이 이전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이후 세대의 경우 퇴직연금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통적으로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이전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노후대비로 가장 적합한 생활자금에 대한 인식 비교(1순위 응답)

(단위: %)

구분	국민연금 등	퇴직연금	은행예금	개인연금	부동산 수입	노후 근로소득	저축성보험	자녀의 경제적 지원
이후 세대	42.7	13.4	8.6	19.2	9.0	4.4	2.6	0.1
베이비붐 세대	38.4	10.6	13.1	16.7	10.2	8.2	2.0	0.8
이전 세대	40.6	12.0	13.5	10.6	11.3	7.1	1.5	3.4
전체	41.3	12.5	10.6	16.7	9.8	5.8	2.3	1.0

■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이 7.0%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45.8%)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이(64.9%)로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전술한 질병보장보험, 저축성보험과 후술하는 개인연금 등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6〉 노후준비 수준 평가 비교

(단위: %)

구분	잘하고 있음	보통	잘 못하고 있음
이후 세대	6.2	44.4	49.3
베이비붐 세대	9.4	55.5	35.1
이전 세대	6.8	46.6	46.6
전체	7.0	47.2	45.8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 저축액과 향후 노후비용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노후대비 월 평균 저축금액은 베이비붐 세대가 32.1만 원으로 다른 세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 이는 이후 세대의 저 연령층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이전 세대에서는 상당수가 이미 은퇴하여 노후자금을 소진하고 있는 세대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현재의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45.2%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조달능력을 나타냄**.

〈표 7〉 노후대책 실태 비교

(단위: 만 원, %)

구분	현재 노후대비 저축금액(월)	은퇴 후 필요소득 대비 조달가능한 금액 비율
이후 세대	22.1	43.8
베이비붐 세대	32.1	45.2
이전 세대	19.3	40.9
전체	23.5	43.5

■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개인연금(31.0%) 가입률은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고*, 퇴직연금 가입률(14.7%)은 이전 세대(4.9%)보다 9.8%p 높은 수준임**.

- 이들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 확대와 함께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노후비용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이전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비 가입률(39.8%)이 가장 높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는데 특히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은 이전 세대의 상당수가 퇴직일시금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8〉 공·사연금 가입률 비교(복수응답 포함)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비가입
이후 세대	77.9	3.6	15.1	22.6	13.5
베이비붐 세대	84.1	4.9	14.7	31.0	9.8
이전 세대	52.3	2.6	4.9	9.4	39.8
전체	73.5	3.7	12.8	21.4	18.6

주: 세대주 기준.

■ 가구당 공·사연금 보험료는 베이비붐 세대가 월 평균 27.5만 원으로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이전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8만 원 높음.

-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당수가 은퇴한 이후 세대는 공·사연금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9〉 가구당 월 평균 공·사연금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만 원)

구분	이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	전체(n=977)
월 납입보험료	22.2	27.5	19.5	23.3

주: 세대주 기준.

■ 향후 새로운 개인연금제도 도입 시 세제혜택 제공 방식에 대해 현행 세제혜택 방식의 지지율이 낮아 개인연금의 세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들은 현행과 동일한 세제방식, 저소득·다자녀 중심, 저소득 중심의 세제혜택 방식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이후 세대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중심의 세제혜택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활동과 출산이 가능한 점이 반영된 결과임.

〈표 10〉 새로운 개인연금제도 도입 시 세제혜택 제공 방식 비교(복수응답)

(단위: %)

구분	현행과 동일한 세제혜택 방식	저소득·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방식	저소득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방식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제공되는 방식
이후 세대	28.9	36.6	25.0	9.6
베이비붐 세대	31.4	31.8	28.6	8.2
이전 세대	24.4	32.3	35.7	7.5
전체	28.4	34.7	28.1	8.8

4. 시사점



■ 조사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보험가입 및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나타남.

- 특히, 조기퇴직 또는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1~63세)까지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수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은퇴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연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질병보험 및 사망보험 등 보장자산에 베이비붐 세대의 가입이 집중되어 있어 보장자산과 은퇴자산의 적절한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개인의 의식전환과 함께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베이비붐 세대 미가입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 유인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에게 개인연금 신규 가입 시 세제적격 납입기간(10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부족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결과 현행 개인연금 세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70% 이상이 응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대비가 미흡한 계층을 중심으로 노후준비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됨.
-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권 확보와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수급권이 보장되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단일화하고 연금화를 유도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이후 수령한 퇴직금이 생활자금 및 자녀지원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 확대⁵⁾와 폐업에 따른 자산 소진으로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소득원 확보를 위해 2017년 적용 예정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들이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상당수가 10년 이상 가입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연금 수급권 확보 차원에서 가입기간과 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kiri](#)

5) 중소기업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수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최근 자영업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함. 또한, 자영업의 경우 전형적인 회전문(revolving door) 업종으로 창업-폐업-재창업의 악순환 속에 보유 자산을 소진하게 되어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이동주 외(2012. 8),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창업 급증』.